

대기업 지분인수 활발... 58개사 새로 계열 편입

최근 3개월 동안 58개 회사가 대기업 계열에 편입됐고 57개 회사가 계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합병제의 사유를 살펴보면 △지분 인수 △부동산 청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등이 눈에 띄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022년 8월1일~2022년 10월31일)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76개의 소속 회사는 2022년 7월31일 기준 2886곳에서 10월31일 기준 2887곳으로 1곳 증가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8곳이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지분매각 등으로 57곳이 계열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간 중 소속 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40개였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5개·분할 4개) △지분취득(22개) △동반편입(3개) △지배력 획득(2개) △편입의제(1개) △계열편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편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그룹으로 11개였다.

박미나 기자

공정위,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내용 공개

SK, 11개로 최다... 계열 제외된 곳은 57개사

입(1개) 등이었다. 계열 제외 사유로는 △청산 종결(30개) △흡수합병(9개) △지분매각(6개) △독립경영 인정(5개) △임원사

임(3개) △대표이사 변경(2개) △지배력 상실(2개) 등이 있었다.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

그룹으로 11개였고, 이어 △KG(5개) △태영(4개) △다우유(4개) 등의 순이었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9개

인 아이에스(IS)지주로 나타났고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 삼강엔지니어링 외 동반 편입 2개사 △대리기사 중계 솔루션업체 로지소프트 등의 지분을 취득했고 △폐기물 처리업체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디와인디스 △디와이플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다수 인수했다.

KG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쌍용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고 인수와 관련한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등 3개사를 신설했다. CJ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에그이즈커밍'과 '길픽처스'를 인수했고 중앙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씨브라임'의 지분을 인수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청산 종결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설립돼 소

속 회사로 편입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IS지주 소속 부동산 개발 업체인 이누스건설 등 9개사와 대방건설 소속 건설업체인 디엠건설 등 4개사, SM 소속 건설업체인 에스티에스건설자산관리 등이 청산 종결됐다. SM 소속 건설업체인 유비씨플러스와 태영 소속 부동산 개발사 천안에코파크 등 2개사, 신영 소속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비 등 2개사 등이 신설됐다.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 또는 보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효성 소속 일반지주회사인 ㈜효성이 100% 출자해 CVC 효성벤처스를 신규 설립했고, CJ 소속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같은 집단 소속 CVC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일반지주회사인 CJ에 매각하고 해당 CVC는 CJ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현대이지웰, 모바일 식권 기업 '벤디스' 371억에 인수

모바일 식권 B2B·B2E 시장 1위 도약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긍정적 효과"

현대이지웰이 국내 모바일 식권 1위 기업 벤디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로 현대이지웰은 기업이 임직원들의 식대를 지급하는 '식대복지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 간 거래(B2B)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원 간 거래(B2E)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현대이지웰은 조정호 벤디스 대표 등이 보유한 지분의 50%와 재무적투자자(FI) 등 일반 투자자 보유지분 전량 등 모두 88.8%의 지분을 371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현대이지웰은 7일 이사회를 열고 벤디스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는 벤디스 경영권 매각 이후에도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 경영에 지속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된 현대이지웰은 일반기업과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몰'을 위탁 운영하는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복지포인트 수주 규모 1조 1000억 원을 달성해 국내 선택적 복지제도 시장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벤디스는 국내 모바일 식권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한 1위 업체로,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식권 플랫폼 '식권대장'을 론칭했다.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거듭해 지난해 거래액 638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이지웰은 이번 벤디스 인수를 통해 선택적 복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사 협업 시너지

를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대이지웰 관계자는 "벤디스와 현대이지웰의 고객사 중복 비율도 낮아 이번 인수를 통한 향후 높은 시너지 창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이지웰은 이번 인수 후 양사 주요 실무진으로 구성된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사 및 가맹점 확대 △커머스 연계 △계열사 시너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구매(간편사몰키트 판매)' '임직원 혜택몰(복지몰)' 등 커머스 사업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영순 현대이지웰 대표는 "이번 벤디스 인수를 통해 국내 최고의 토탈복지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기업가치 상승은 물론 주주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올해 디스플레이 수요 역성장... 내년 하반기 회복 전망

전년비 6.9%↓...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역사 최초 면적 수요 감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최초로 디스플레이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최근 발표한 '디스플레이 중장기 수요 예측 보고서'에서 2023년 디스플레이 수요가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수요 급감 현상이 끝나감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설명했다.

올해 초반 하더라도 2022년 디스플레이 수요는 정상 수준보다 낮아지면서 코로나 19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더 가파르게 감소해 전년 대비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2년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역사상 최초로 면적 수요가 역성장하는 첫해로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1년 넘게 하락한 패널 가격과 소매 가격이 크게 하락한 초대형 TV 수요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면적 수요 또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패널 업체들은 초대형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70인치 이상의 다양한 TV 사이즈 제품들을 양산하고 공정 효율을 최적화해 제조원가 절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70인치 이상 TV 시장은 2022년 1800만대에서 2023년 2100만대로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70인치 이상 TV 시장의 비중이 2023



2023년에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스

년 처음으로 전체 TV 디스플레이 시장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옴디아는 "TV 디스플레이는 전체 평면 디스플레이의 약 80%의 면적 출하량을 차지하며 TV 디스플레이 수요 회복세는 전체 평면 디스플레이 면적 수요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공장 가동률을 낮추려는 패널 업체의 전례 없는 노력에도 세트 업체들의 재고 수준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2023년 상반기의 패널 수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안전은 넘어 안심까지
KESCO가 대한민국을
안심하게 합니다

1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전기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기안전건을 인증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그리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개설까지-
KESCO의 더 스마트한 전기안전체계 구축이
우리집 전기안전을 더욱 안심하게 합니다

**안전은 넘어 안심까지-
KESCO가 대한민국을 안심하게 합니다**

안전은 넘어 안심까지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더 -
KESCO는 이런 일도 합니다

- 발전소부터 가정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및 기술지원
- IoT기반전기안전기술 개발 및 솔루션 보급
- 전기안전 국제기술협력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신재생 에너지 전기설비 검사 및 기술지원
-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